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역사적인 100일전투으로 불러일으키신 현명한 령도

정 대 봉

우리 당의 전투기록집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기하시고 조직령도하신 당 제6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한 100일전투도 기록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역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115~116페이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월 1일 정무원(당시)의 책임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구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를 높이 받들어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가장 뜻깊은 해로 빛내이실 구상을 밝히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인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당대회전으로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10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는데서 기본은 전해보다 높이 세운 주체69(1980)년 인민경제계획을 당대회전에 앞당겨 완수하는것이였다.

당시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총화한데 의하면 방대한 과제가 남아있었다. 남은 계획량을 반년이 아니라 석달남짓한 기간에 해내야 했고 현물지표별로가 아니라 금액상으로 상반년도계획을 수행한 부분적인 단위들에서는 이 기간에 현물지표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9(1980)년 6월 중순 정무원의 한 책임일군에게 지금 속도로는 당대회전으로 년간계획을 완수할것 같지 못하므로 자신께서 결심을 내놓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100일전투를 발기하시였다.

머칠후 정무원의 책임일군을 또다시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0일전투의 목표는 높지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키면 그것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높은 충실성을 믿고 100일전투를 짜고들어 본때있게 내밀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중앙위원회구호와 전보지시를 받들고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일제히 진행된데 이어 7월 1일부터 역사적인 100일전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100일전투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력사적인 100일전투에 불려일으키신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강력한 지휘력량과 정치사업력량을 마련해주시고 비상한 조직력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전투의 전과정을 진두지휘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무원 사무국을 참모부로 하는 강력한 중앙지휘부를 꾸려주시고 전국 각지의 중요전투단위들에 1만 5 000여명의 능력있는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을 망라하는 지도소조를 무어 파견하시였다. 이와 함께 6월말 당중앙위원회구호와 전보지시문을 내려보내고 당조직정치사업의 화력을 100일전투의 성과적보장에 총집중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0일전투에 진입한 첫날부터 전국의 100여개 단위에 파견되어있는 100일전투지도소조의 사업정형을 매일 보고받으시는 한편 여러 단위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전투과정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당대회대표자선발과 행사준비를 아무리 잘하여도 올해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지 못하면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뜻깊게 맞이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은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올해 계획을 반드시 앞당겨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로 100일전투지도력량을 더욱 보강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8월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이 각 도에 파견되고 100일전투지도력량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 더욱 보강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당조직들이 1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총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100일전투에 모든것을 집중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력사적인 100일전투에 불려일으키신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투장들마다에서 선전선동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9(1980)년 6월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대대적으로 들이댈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충정의 전투에 더욱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하여 중앙지휘부에서 100일전투속보를 새로 발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100일전투와 관련하여 제시된 당의 방침과 당중앙위원회구호, 전보지시내용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반복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한 강연, 선동, 해설담화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당보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신문들은 100일전투에 펼쳐나서고있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소식들과 100일전투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소개선전하였다.

소리방송에서는 전민을 100일전투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동문, 소개기사, 방문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편집하여 내보냈으며 텔레비죤방송에서는 방송야회

와 시보, 현지방송, 소개영화, 방문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년간계획을 완수한 단위와 일군들을 널리 보도하였다.

공장, 기업소에 파견된 현지방송조는 100일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교환방송, 100일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과 대상들을 고무하는 축하방송, 축하방송무대를 다양하게 조직하였다. 그리고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모란봉예술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과 도예술단체, 공장, 기업소 기동예술선전대, 방송선전차들이 들끓는 100일전투장에서 축하공연, 출근길환영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예술선동,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렸다.

이와 함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영화 《백두산》,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15부),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6부작) 등을 가지고 실효투쟁을 조직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100일전투과제수행으로 적극 추동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력사적인 100일전투에 불려일으키신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100일전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심으로써 경제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이끄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기간 100여차의 귀중한 교시를 주시면서 전투과정에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시였으며 승리의 기발을 쫓을 때까지 100일전투를 완강하게 밀고나가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자만자족하는 현상, 패배주의, 소극성에 빠져있는 현상, 아직 전투대렬에 들어서지 못하고있는 현상 등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월초 정무원 책임일군에게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수송전사들이 불비속을 헤치고 험한 철령을 넘어 전선에 포탄을 공급하던 영웅적투쟁정신에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해주시면서 100일전투의 고지를 점령하는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자동차를 몰고 적탄이 비발치는 철령을 넘나들던것보다 더 어렵겠는가, 철령을 넘나들던 인민군용사들이 지냈던 그런 강의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만 가지면 점령 못할 고지란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월 초순 어느날에는 장마철기간에 비가 적게 내릴것을 예견하시어 미리 전력생산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고 탄광의 저탄장들에 석탄이 차고넘치지만 공장들에서 석탄이 부족하여 생산에 지장을 받고있던 9월 초에는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수송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의 전투장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경축 사회주의경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100일전투과제수행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타올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이 이룩되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을 옹계 배합하면서 모든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이상기후현상이 그처럼 심하게 미친 불리한 조건에서도 100일전투기간에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발전량을 118%로 장성시켰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련대수송지휘를 잘 짜고들어 원자재와 제품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 한편 화차를 재생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벌려 8월 한달동안에 만도 세워두었던 화차를 수리하고 50개의 집중수송렬차를 편성하여 하루평균 8 600t의 짐을 더 실어나른 결과 이해 8월 전달에 비하여 화물수송량을 130~140%로 높이고 최고 36만t의 짐을 실어나르는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69(1980)년 9월 30일 전국적으로 100일 전투과제가 빛나게 넘쳐 수행되었으며 전투기간 공업생산은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142%로 장성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력사적인 100일전투과정에 이룩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며 장군님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강력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마땅한 도덕의리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를 따라 폭풍쳐내달림으로써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할것이다.